

단보

대한지리학회 초대 부회장 김종원(金鍾遠)의 일대기: 1900~1947

허우궁*

1. 일대기의 집필 배경

대한지리학회의 초대 부회장을 역임한 김종원(金鍾遠)은 경성제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분으로, 1947년 1월 답사 도중에 병을 얻어 안타깝게도 47세에 일찍 타계하였다. 광복 직후 대한지리학회의 토대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선생에 대하여, 막상 지리학계의 기록은 소략하다. 대한지리학회의 학회지인 『地理學』 창간호(1963)에는 ‘학회연혁 및 근황’이라는 제목 아래 1945년 9월 학회 창립 이래 주요 사안들을 실었는데, 이 기록의 1946년분에서 “總會에서 地質學者 金鍾遠氏가 副會長으로 就任하여 會의 活動이 더욱 活發하여 갔었으며, 攄분의 逝去로 陸芝修氏가 副會長에 就任하였다.(p.113)”고 적은 것이 선생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그가 학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쉬울 뿐 아니라, 그가 마치 1946년에 별세한 것처럼 읽히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¹⁾

김종원은 대한지리학회의 첫 부회장으로 1년 남짓 재임한 것이 지리학계와의 인연의 전부이지만, 이공학계에서는 옛일을 다룰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선생에 관한 기록이 지리학계의 경우보다 빈도는 월등히 높지만, 기록자들의 관심사가 그의 교수 시절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대부분 단편적이며 엇갈리는 대목도 적지 않다.

김종원에 대한 기록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가장 이른 것으로는 1946년부터 2년간 발간되었던 계간지 『現代科學』에 실린 기사들과 학원사가 편찬한 『大百科事典』 제1권(1958)에 실린 ‘金鍾遠’이라는 항목(p.936)을 들 수 있다. 『現代科學』의 기사가 선생 생전에 쓰여진 것이라면, 학원사 『大百科事典』의 내용은 그의 사후 10여년쯤의 기록이다. 『現代科學』은 매호 ‘특별부록 朝鮮科學家總觀’란을 두어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과학계 인사들의 이름, 나이, 출신도, 현 직위, 최종학력을 조사 수록하였으며, 창간호(1946년 5월)의 ‘총관’란에는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진이 가장 먼저 실린 가운데 선생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²⁾ 『現代科學』은 또한 ‘새 朝鮮을 걸머진 自然科學者 片貌’라는 난을 두고, 매호 3~5명씩의 저명 과학자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창간호에서는 이태규(李泰圭, 경성대학 이공학부장), 윤일선(尹日善, 경성대학 의학부장), 이원철(李源喆, 중앙관상대장) 세 사람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제2호(1946년 8월)에는 김종원을 비롯하여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 4명이 소개되어 있다(pp.68~69). 선생의 출생과 교육, 인품 등을 다룬 이 기사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그런 소개 기사가 일찍 게재되었다는 점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선생이 다른 과학계 인사들보다 훨씬 앞서 소개되었다는 점은 (이 잡지의 저명 과학자 선정 기준이 당시 한국 과학계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선생의 명망을 보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사의 『大百科事典』에 수록된 내용은 선생의 출생, 교육 및 경력을 240여자(띄어쓰기 제외)로 요약한 것으로, 선생의 출생~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물이다. 1950년대 말의 출판물에서 선생에 대한 기록을 담았다는 점 역시, 그가 별세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당시의 명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다른 문헌 대부분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1980년대 이후에 발간된 것으로서, 광복 전후의 역사를 다루는 대목에서 선생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국내 자연과학계의 기록 가운데 1940년대의 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는 『대한지질학회50주년사 자료집, 1947~1997』(대한지질학회, 1997)과 『서울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初期 略史, 1920~1953』(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999)를 꼽을 수 있다. 두 문헌은 강점기와 광복 후의 지질학계 사정,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와 대한지질학회의 창립 과정 등이 밝혀져 있으며, 선생과 관련한 내용도 띄엄띄엄 포함되어 있다(전자는 pp.7~12, 후자는 p.20 및 pp.176~178). 공학계에서도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니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 學科史 中心』(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987)이 그것이다. 이 기록물은 1941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광산야금학과와 광복 후 이를 이어받은 경성대학 이공학부 광산야금학과와 교육과정, 교수진, 학생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문헌은 또한 1946년 후반기에 시작된 국립서울대학교의 추진 과정, 그리고 이에 따라 경성대학과 몇몇 전문학교 및 기관이 합쳐져 지질학과를 포함한 일부 분야는 문리과대학으로 다른 분야는 공과대학으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 선생에 관한 기록도 관련 대목에서 군데군데 등장한다(pp.19~20, p.351).

지리학계의 기록으로는 대한지리학회가 편찬한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2016)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제7장 현대 한국지리학의 선구자들'에서는 학회의 기틀을 마련한 분들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하였으며, 김종원에 대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pp.321~323). 이 글의 특징은 선생이 일본 도쿄제국대

학(東京帝國大學) 이공학부 재학 시절에 찍은 사진을 입수하여 게재한 것으로, 그의 모습을 담은 유일한 사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의 연구업적 목록을 과학계 문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실은 것도 내세울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대다수의 문헌과 마찬가지로 선생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가 발간된 지 3년이 지나, 이 부실했던 글을 고쳐 쓸 기회가 홀연히 다가왔다. 2018년 초겨울에 김종원 선생의 조카 김규태(金珪泰, 이하 '유족')님이 이 출판물을 접하고서, 선생에 대한 기록 일부와 자신이 기억하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 등을 필자에게 전해왔으며, 이후로도 보충 자료를 여러 차례 보내온 것이다. 이에 필자는 건넌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자료의 추가발굴도 시도하여, 선생의 일생을 따라가며 어긋나는 기록은 바로 잡고 비어 있는 대목은 찾아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대한지리학회의 초기 역사를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다른 학계에서 옛 일을 상고하려 할 때도 쓸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김종원의 생애와 학업

김종원은 1900년 10월 4일,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농소면(農所面) 월곡동(月谷洞) 778번지에서 부친 김학배(金鶴培) 모친 윤연봉(尹延鳳)님의 3남1녀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김해(金海)이다.³⁾ 유족의 증언으로



그림 1. 도쿄제국대학 시절의 김종원

는, 선생의 부친은 김천에서 가세를 크게 일으켰으며, 1948년 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로 국가에 매수된 전답(田畓)만 3만 평이 넘었다고 하니, 선생은 부농(富農)의 장남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난 듯하다.

선생의 학교교육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는 어릴 적에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김천군 개령면(開寧面)의 4년제 개령공립보통학교(1912년 설립, 현 개령초등학교)를 다녔다. 농소면 북쪽에 면한 개령은 1910년대까지도 일대의 으뜸 중심지였고, 김천은 아직 경부선과 경북선의 요역(要驛)으로 성장하기 전이었다.⁴⁾ 선생의 생가에서 개령초등학교까지는 8km가 조금 넘는 거리였지만, 당시의 중심지 여건으로 보아 장거리 통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선생은 개령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16년에 대구시의 대구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학교를 중퇴하고, 1919년에 일본으로 유학하게 된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기미년 만세운동으로 학교가 휴교되고 일본 경찰이 운동 주모자를 색출하던 터라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던 그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초등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가 일본 유학을 권하고 소개장을 써주었다고 한다.⁵⁾

선생의 국내 초중등교육 경로가 순탄하지 못했던 데 비해, 일본 유학 과정은 순조로웠다. 그는 1925년 3월에 히로시마(廣島)에 있는 산요(山陽)중학교(지금의 산요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⁶⁾ 선생은 같은 해 4월에 시코쿠(四國) 마쓰야마(松山)시의 마쓰야마(松山)고등학교(지금의 에히메대학(愛媛大學)) 이과(理科) 을류(乙類)에 진학하여 자연과학도로서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3년 후인 1928년 3월에 졸업하였다.⁷⁾ 선생이 28세 되던 해였다.

일본에서 구제(舊制) 고등학교는 1894년 및 1918년의 고등학교령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현재 대학 교양과정에 해당하였으며, 졸업생들은 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1919년에 세워진 마쓰야마고등학교는 일본 전체로는 12번째, 시코쿠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3년제 구제 고등학교이다. 구제 고등학교는 크게 문과와 이과로 나뉘고, 다시 이수하는 제1외국어에 따라 갑류(甲類, 영어 전공), 을류(乙類, 독일어 전공), 병류(丙類, 프랑스어 전공)로 구분하였는데 병류를 설치한 학교는 많지 않았다. 마쓰야마고등학교에서도 문과와 이과 모두 병류는 설치하지 않았고, 선생의 이과 동기생 84명 가운데 갑류와 을류 학생이 각각 42명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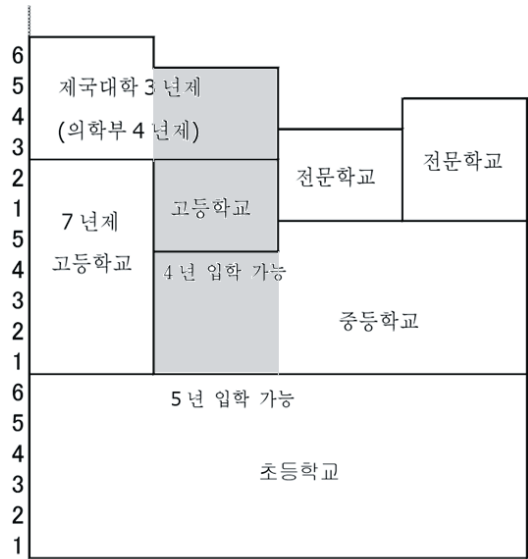


그림 2.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학제

주: 그림 중앙의 회색조 부분은 김종원이 일본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을 가리킴.

서부 일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선생은 대학교육을 위해 드디어 수도 도쿄에 진출하게 된다. 그는 마쓰야마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1928년 4월 1일에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지질학과에 입학하여, 3년 후인 1931년 3월 3일에 졸업하고 이학사(理學士) 학위를 받았다.⁸⁾

선생은 이후 수년간 귀국하여 있다가, 1937년에 서부 일본으로 되돌아가 후쿠오카(福岡)시의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공학부 지질학교실에서 대학원생으로 연구생활을 다시 시작한다.⁹⁾ 그러나 그가 규슈제국대학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규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1936~1941년 동안, 규슈제국대학일람(九州帝國大學一覽)의 해당 연도분 가운데 1937년도 일람을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38년에서 1939년초에 걸쳐 단독논문 2편(연구업적 6과 7)과 이 대학 기노시타 카메키(木下龜城) 교수와의 공동논문 2편(연구업적 8과 9)이나 발표된 점으로 미루어, 1938년(과 1939년)에도 대학에서 그의 연구활동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선생이 발표한 모든 연구물에서 자신의 학력을 ‘이

학사(理學士)’로만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규슈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한 듯하다. 그의 규슈제국대학 대학원 재학 기록이 1937년 한 해에 그친데다가, 끝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던 데에는 1938~1939년에 이 대학에서 벌어진 일련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적을 두었던 지질학교실은 본래 공학부 소속이었으나 1939년부터는 신설된 이학부 소속으로 바뀌는 한편, (지도교수였던) 기노시타 교수는 공학부 채광학교실로 옮겨가는 등 지질학교실의 교수진에도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선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만든 사유가 무엇이었든, 1930년대 말은 그에게 힘든 시기였을 것만은 분명하다.

선생은 47세 되던 1947년 1월 23일 오후 11시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 산하 광업연구소(鑛業研究所)¹¹⁾의 충신동(忠信町) 사택(社宅)에서 급환으로 별세하였고, 장례는 조선광업기술협회장(葬)으로 치러졌다¹²⁾. 유족에게 크나큰 슬픔이었을 뿐 아니라, 학자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즈음이었으니 학계로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록들에 의하면, 그는 동두천의 한 광산에 답사를 나갔다가 병을

얻어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타계하였다고 하며, 병인은 급체, 식중독 등으로 전하고 있다.

선생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매우 귀하다. 지금까지 입수한 사진으로는 도쿄제국대학 지질학과 1928년도 입학생들의 단체사진이 유일하며, 그의 20대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이 사진에서 김종원으로 지목된 인물의 얼굴을 확대한 것이 <그림 1>의 사진으로, 교복 차림에 조금 짧게 깎은 머리와 각진 이마가 인상적이다.¹³⁾

선생은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강요당했던 창씨개명은 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성 김(金)은 ‘가네하라(金原)’로 개명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일관되게 ‘金鐘遠’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1940년대 초 일본 학자의 논문에서도 선생의 이름을 일본식 발음인 ‘킨쇼엔’이라고 적은 것을 볼 수 있다.¹⁴⁾ 선생은 일찍이 15세(1915)에 이웃 면인 김천군 위량면(位良面 九野洞, 지금의 감문면 구야리)에서 한 살 위인 16세의 규슈(이홍보, 李洪甫)를 신부로 맞이하였으며, 슬하에 외동 딸(정희(貞姬), 1933년생)을 두었다.



그림 3. 도쿄제국대학 ‘지질학교실 사진첩’의 1928년 4월 입학생 사진첩의 오른쪽에는 “昭和3年入學, 地質學教室”, 하단에는 사진의 뒷열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의 성이 “金”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출처: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계연구과 지구혹성과학전공

3. 활동과 업적

선생은 1931년 봄 도쿄제국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바로 귀국하여,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1931)와 일본 추가이(中外)광업주식회사 상주광업소(1932~1936)에서 근무하였다.¹⁵⁾ 이후 그는 일본으로 되돌아가 규슈제국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연구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여,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에서 조사과장(1941) 및 기사(技師, 1943)로 근무하였다. 당시 ‘技師’란 경력이 풍부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존경과 우대의 뜻을 담아 부르는 직함이었다.¹⁶⁾ 이후 1944년부터 그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광산야금학과의 강사¹⁷⁾가 되었고 광복 직전에는 마침내 교수로 취임하여, 강점기 동안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가 되었다.¹⁸⁾ 당시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에 지질학과를 설립할 계획으로 그가 임용되었다고 하며, 그는 광복 후에도 지질학과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기록이 다수 보인다.

광복 이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다시 ‘국립서울대학교’로 이름과 체제가 연거푸 바뀐 탓에, 선생의 신분도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교수’에서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 및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로 바뀌게 된다. 선생이 교편을 잡았던 시기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다루고 있어 그의 직위와 시기에 대한 이설(異說)도 적지 않지만, 기록을 종합하면 그의 교수 경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45년 7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광산야금학과 교수

1945년 11월: 경성대학 이공학부 광산야금학과 교수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가 탄생한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946년 7월 13일에 국립서울대학교 안이 발표되고 이어 8월 27일에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내에 문리과대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 1년여는 과도기였

던 듯, 구 경성대학의 지질학 교수진이 문리과대학의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처우 되었는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¹⁹⁾ 당시 나라 전체가 격동 속에 있었고 학교 내부로는 이른바 ‘국대안(國大案)’에 대해 찬반 대립이 심하였던 사정과, 6.25전쟁으로 수많은 기록물들이 사라지고 만 것이 이런 혼란스러운 기록의 배경일 것이다. 공식 기록을 떠나서, 서울대학교의 초기 역사를 다룬 다수의 문헌에서 선생이 “1946년 서울대학교 설립 후 지질학과 교수로 임명돼 취임을 기다렸다”는 언급이 있는 점²⁰⁾, 선생의 글을 연재한 『現代科學』 제3호, 제4호, 제5호에서 그의 직위를 “문리과대학 지질학과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연구업적 16 참조), 1947년 1월에 선생의 별세를 전한 신문기사들에서도 모두 선생의 신분을 “문리과대학 교수”라고 적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서울대학교의 내부 사정이 어떠했던 실질적으로는 문리과대학의 교수(및 지질학과장)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선생에게는 교수 시절에 짧은 기간이나마 겸직 경력도 있다. 그는 광복 직전인 1945년 7월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조선총독부 산하의 대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겸보(미주 18 참조)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1946년 상반기에 조선자원과학연구소 소장을 겸임(연구업적 15 참조)하였다.

선생의 연구물은 대부분 광복 전에 출판되었고, 광복 이후의 출판물로는 세 편(연구업적 14, 15, 16)이 알려지고 있다. 광복 전의 출판물은 모두 일본어로 쓰였고 답사와 분석 결과를 논문의 형식으로 정리한 글이 대부분인 데 비해, 광복 후의 글은 세 편 모두 한반도의 지사(地史)와 지하자원에 대한 해설 성격의 글이다.

광복 전 선생의 연구업적을 살펴보면 고생물학 및 광물학 분야의 연구물을 여러 편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고바야시 데이이찌(小林貞一)²¹⁾와의 공동논문(1931, 연구업적 2)은 서구식 논문의 한국인 저자로서는 가장 일컫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²⁾ 연구물에서 다룬 주제는 대부분 한반도의 지층구조(연구업적 1, 2)와 광상(鑛床)(연구업적 3, 4, 5, 10, 11, 13)에 관한 것이며, 이 가운데 1931년도에 출판된 두 편의

글(연구업적 1, 2)이 선생이 도쿄제국대학에서 이학사 학위 취득과 관련된 연구의 성과물로 보인다. 일본의 금, 은 및 주석 광상에 관한 연구물도 4편(연구업적 6, 7, 8, 9)이 있으며, 이들은 그가 규슈제국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이수할 때 생산되었다.

선생의 연구물들은 매우 오래 전에 출판된 것이지만, 요즘은 학술논문의 눈높이에서 보아서도 그 체제와 실질에 손색이 없다. 본문은 모두 일본어로 쓰였지만, 표와 그림은 영어로 작성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당시에 이미 국제적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연구물에 포함된 그림들은 매우 정교하여, 품이 많이 드는 집필과정을 거쳤음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글마다 지질도, 단면도, 수치분석 결과표를 보여주는 그래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그림은 수제도(手製圖)했던 시절이었으니만큼 논문 한편의 집필~교정~인쇄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제도 수준이 정교한 것이 인상적이고, (그림에는 서양의 관행처럼 제도한 사람의 서명이 없어서, 누가 그린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선생이 지도와 그림들을 손수 제도했다면 그의 제도 솜씨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림에 포함된 글자들은 제도한 사람의 필체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광복 이후의 출판물 세 편은 모두 한글로 쓰였다. 1946년에 출판된 『朝鮮의 地質과 鑛物』(연구업적 14)은 2쪽 분량으로, 한반도의 지질과 광물자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쇄의 품질이 좋지 못한다. 조판(組版)이 불완전하여 일부 문장이 끊기는 등 글의 흐름을 가늠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 아쉽다. 그러나 잡지 『現代科學』에 실린 글들은 조판과 인쇄 상태가 우수하여, 출판사에 따라 글이 빛나거나 가리기도 했던 당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現代科學』 창간호(1946년 5월)에는 “朝鮮의 地下資源”이라는 3쪽 분량의 해설문(연구업적 15)을 실었으며, 역시 같은 해에 연재를 시작한 “朝鮮의 地史”(연구업적 16)는 첫 회(제3호, 1946년 12월)분에서는 지질계통 전반을 먼저 소개한 다음 시생대와 원생대의 한반도 지질을 다루었다. 연재 2회(제4호, 1947년 3월)와 3회(제5호, 1947년 5월)분에서는 고생대의 한반도 지질과 화

석에 대하여 캄브리아기(글에서는 ‘寒武利亞紀’)로 표기)와 오도비스기(‘奧陶紀’)까지 설명하고 있다. 2회와 3회 연재물은 선생 서거 이후에 출판되었으며, 제4호 편집후기와 제5호 연재글 첫머리에 편집자의 주석에서 유고(遺稿)임을 밝히고 있다. 미리 받아 두었던 원고를 여러 회에 나누어 실으면서 생긴 일로 짐작된다. 연재 내용이 고생대 중간에서 그친 것으로 미루어, 만약 선생이 서거하지 않았더라면 이 연재물은 이후로도 여러 회 더 지속되었을 것이다.

선생은 대한지리학회 뿐 아니라 대한지질학회의 창립에도 공헌하였다. 1946년 9월에 청량리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에서 대한지질학회 발기인 대회가 열렸고, 선생은 이 대회에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다. 대한지질학회 창립총회는 그의 타계 석 달 후인 1947년 4월 10일 서울 정릉에서 열렸다.²³⁾

4. 성품과 일화

선생은 답사를 자주 다녔으며, 복장도 자연 허름하였다. 그러나 이는 답사에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그의 소탈한 성품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의 회고에 따르면, 선생은 항상 국민복 차림에 밑단이 좁은 바지(일명 ‘당꼬바지’)를 입고 각반(脚絆, gaiters, 게터)을 돌렸으며, 일본식 작업화(地下足袋, じかたび)를 신고 다녔다. 그는 늘 배낭을 메고 다녔으며 배낭에는 돌이 들어 있어, 그의 부친은 “돈 들여 공부시켰더니 돌맹이만 지고 다닌다”며 못마땅해하였다. 선생의 행색이 그러하여 함경북도 답사 때에는 일본 경찰에 수상한 인물로 오해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마침 함흥 검찰청에 일본 유학시절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어 도움을 받아 풀려났다고 한다.

『現代科學』의 ‘새 朝鮮을 걸머진 自然科學者 片貌’ 난은 선생을 온순하고 과묵한 성품, 꾸밈 줄 모르는 인물, 조선의 지질과 광상에 해박하며 과학계몽에 전념하는 학자로 그리고 있다:

“... 그는 理工學部鑛山科主任教授 金鍾遠氏다. 氏의 溫順하고 寡黙한性格은 어느모로보아도純粹한學者다. 地質學界의 獨特한存在로 알려진 氏는 朝鮮地質과鑛床에四通五達이다. 氏의 清廉潔白한 性稟은 多年鑛產業界로活躍하면서인제든지文字 그대로 赤貧한 生活을하는것으로보아도 窺知할 것이다. 氏를처음보는사람은 大學教授라기보다 村夫라고부를 것이다. 氏는外飾할줄은 도모지모르고 儉素하기짝이없다.그리고 科學朝鮮을 爲하야育英事業 그것밖에는 다른것은 모를 만치 科學啓蒙에對하야 그의 熱意를 모다傾注하는듯 氏의 謹嚴한 學究生活은 科學朝鮮의 聲價를 遺憾없이發揮될 것이다...”(『現代科學』 제2호 (1946. 8), p.69. (원문대로 실음.)

선생의 뛰어난 실력과 소탈한 인품은 최형섭 전 과기처장관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내가 1946년 2월 경성대학에 부임했을 때의 학과장은 김종원 교수였고 ... 김종원교수는 경성제국대학 최초의 한국인 조교수였는데, 학문적으로 일본인들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셨다. 김종원 교수는 바쁜 현장답사 때문이기도 했지만, 천성이 복잡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 언제나 노무자나 다름없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다. 경성제대 시절에 한번은 예과를 나온 일본인 학생들이 학부로 진학하는 구두시험을 보기 위해 이공학부에 왔다. 이들은 시험장을 찾던 차에 복도를 거닐고 있는 허름한 차림의 김 교수를 잡역부로 생각해 시험장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 안내해주던 분이 잡역부가 아닌 바로 찾던 담당교수라는 사실을 알고 몸 둘 바를 몰랐다는 일화가 있다. 이들은 김 교수의 강의를 듣고 탁월한 실력에 다시 한 번 탄복했다고 한다...”(최형섭 전 과기처장관 나의 연구이야기 ②, 매일경제 1997년 7월 15일 목요일판, 35면)

5. 지질학자 김종원과 한국 지리학계

김종원은 대한지리학회의 첫 부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 글은 선생에 관한 기록이 매우 드문 점에 주목하여, 그의 생애를 따라 나가며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발굴하고 기존 기록 가운데 일부 엇갈리는 점은 바로 잡는데 힘썼으며,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평가도 일부나마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자료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모호한 부분과 빈자리도 남아 있다. 특히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김종원 선생은 자신이 부회장으로 일하였던 대한지리학회와 지리학을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지리학계 구성원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궁금증을 풀어줄만한 단서들을 찾는 것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선생이 지리학계 구성원들과 교류를 쌓고 그 교류가 기록으로 남기에는 부회장 재임 1년여란 무척 짧은 기간일지도 모른다. 본래 지리학에는 ‘지역연구’의 전통과 더불어 ‘자연지리학’ 및 ‘인간-자연의 교호작용’ 연구 전통이 강하였기에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경향을 띠어왔다. 따라서 대한지리학회 창립을 주도했던 지리학자들이 지질학자 김종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던 데에는 연장자이자 명망있는 인사를 모신다는 뜻도 있었겠지만, 자연과학계와 교류를 더 도모하려던 뜻도 있었다고 본다. 만약 선생이 오래 생존하였더라면 지리학에서 자연지리학과 생태학적 흐름이 더 왕성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회란 연구 관심사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학회의 역사는, 학회가 이룬 연구성과와 학술행사 등 공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 못지않게, 학회의 ‘사회적 측면’ 곧 구성원들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진다면 입체감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본다.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에서 ‘현대 한국지리학의 선구자들’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한 것도 그러한 시도의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지리학계의 공식-비공식 자료가 더 많이 발굴되어, 초대 부회장 김종원이라는 한 인물의 행적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구자들의 모습이 더 밝혀지고, 나아가 20세기 한국 지리학계의 면면이 다채롭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6. 김종원의 연구업적

1. 金鍾遠, 1931, “平安北道江界厚昌地方の寒武利奧陶紀層の研究追記”, 地質學雜誌 38, pp.584~588.
2. 小林貞一, 金鍾遠, 1931, “鴨綠江南岸地域に點在せる古期岩層の層位學的研究”
(其一), 地學雜誌, 第43卷 第508號(6月號), pp.總349~355.
(其二), 地學雜誌, 第43卷 第509號(7月號), pp.總402~415.
3. 金鍾遠, 1935, “尙州金山地質鑛床に就いて”, 朝鮮鑛業會誌, 第18卷 第3號, pp.56~72.
4. 金鍾遠, 1935, “大德金山鑛床に就いて”, 朝鮮鑛業會會報, 第153號, p.13.
5. 金鍾遠, 1936, “花崗岩中の黃鐵鑛を隨伴せる金鑛床の特徴”, 朝鮮鑛業會誌, 第19卷 第6號, pp.12~20.
6. 金鍾遠, 1938, “鹿兒島縣山田鑛山のテルル銀鑛”, 岩石礦物鑛床學, 第19卷 第4號, pp. 249~254.
7. 金鍾遠, 1938, “大良鑛山の地質及鑛床”, 鈹業, 15卷 3號, pp.15~19. 出版社: 鈹業社, 大阪.
8. 木下龜城, 金鍾遠, 1938, “九州に於けるテルル金銀鑛床”, 地質學雜誌, 45卷 通算 537號, pp.507~508.
9. 木下龜城, 金鍾遠, 1938, “本邦に於けるポトシ型錫鑛床(1)”, 岩石礦物鑛床學, 第20卷 第6號, pp. 總268~281.
木下龜城, 金鍾遠, 1939, “本邦に於けるポトシ型錫鑛床(2)”, 岩石礦物鑛床學, 第21卷 第1號, pp. 25~31.

주: 연구업적 6과 9의 학술지는 학술지의 이름 및 논문에서 모두 鑛자 대신 礦자로 적고 있다.

10. 金鍾遠, 1941, “未老水鉛鑛山概報”, 朝鮮鑛業, 第8卷 第4號, pp.33~35.
11. 金鍾遠, 1941, “水山附近の重石及水鉛鑛床”, 朝鮮鑛業, 第8卷 第11號, pp.7~12.
12. 金鍾遠, 1942, “ヴァナヂウム”
(其一), 朝鮮鑛業會誌, 第25卷 第7號, pp.31~35.
(其二), 朝鮮鑛業會誌, 第25卷 第8號, pp.11~21.
(其三), 朝鮮鑛業會誌, 第25卷 第10號, pp.15~26.
(其四), 朝鮮鑛業會誌, 第25卷 第11號, pp.25~32.
金鍾遠, 1943, “ヴァナヂウム”(其五), 朝鮮鑛業會誌, 第26卷 第2號, pp.61~70.
13. 金鍾遠, 1943, “三和重石鑛山の地質鑛床”, 朝鮮鑛業會誌, 第26卷 第4號, pp.7~14.
14. 金鍾遠, 1946, “朝鮮の地質과 鑛物”, 鑛業技術, 第1卷 第1號, pp.12~13. 朝鮮鑛業技術協會.
15. 金鍾遠, 1946, “朝鮮의 地下資源,” 現代科學, 第1號, pp.16~18. 現代科學社, 1946. 5.
16. 金鍾遠, 1946, “地質學講話: 朝鮮의 地史”
(其一), 現代科學, 第3號, pp.32~35. 現代科學社, 1946. 12.
(其二), 現代科學, 第4號, pp.28~31. 現代科學社, 1947. 3.
(其三), 現代科學, 第5號, pp.52~54. 現代科學社, 1947. 5.

감사의 글: 일본 자료의 2019년 추가조사는 무라야마 미야(村山美哉, 혼전 이름은 반도 미야(坂東美哉), 2008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씨가 도와주었다. 김영성(金永聲, 상명대학교 명예교수)교수는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同窓會員名簿』(1970)와 『서울대人名錄』(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12)을 제공하였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증언한 유족 김규태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주

- 1) 地理學 창간호보다 50여년 뒤에 발간된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2016)에서는 ‘… 김종원 부회장이 갑자기 별세하여, 1947년 4월 초순 … 학회 연구발표회를 계기로 … 육수교수를 부회장으로 추대하였다’고 부회장 승계 시기를 명기하였다.(p.40)
- 2) 現代科學 제1호, 朝鮮科學家總觀(其一), p.76: “金鍾遠 四八 慶北 鑛山學教授 日本東大卒.”
- 3) 現代科學에서는 선생의 출생연도를 1899년이라 적고 있다(창간호(1946) p.76 및 제2호(1946) p.69). 본고에서 1900년 출생이라 한 것은 호적의 기록에 근거하였다.
- 4) 조선시대의 김산(金山), 지례(知禮), 개령(開寧) 3개 군현이 1914년에 김천군으로 통폐합되었던 만큼, 개령은 당시 중요한 중심지의 하나였다. 김천군은 1949년에 김천시와 금릉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도농통합 정책에 따라 김천시로 다시 통합된다. 경부선 철도는 1904년 말에 속성공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1월에 운수영업을 개시하였다. 경북선 철도는 1922년 4월에 기공하여, 1924년 10월에 김천-상주 구간이 먼저 개통되었고, 1931년 9월 김천~안동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 2011,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p.257~258; 허우궁, 도도로키 히로시, 2007, 개항기 전후 경상도의 육상교통,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총서 24, pp. 56~59, 138~147.
- 5) 한국에서 선생이 이수한 학교교육의 내용은 학원사의 기록과 유족의 증언에 기초하였다.
- 6) 山陽同窓會, 2018, 山陽同窓會會員名簿, p.9: “舊制山陽中學校 大正14年3月卒業 (第13回 174名)”.
- 7) 松山高等學校一覽 大正14年度, p.94; 大正15年度 p.191; 昭和2年度 p.220; 昭和3年度, p.143.
- 8) 東京帝國大學, 卒業生氏名錄, p.407.
- 9) 九州帝國大學一覽 1937년관의 대학원생 명단에 “鑛床學ニ關スル研究, 理學士 金鍾遠, 朝鮮”이라 적혀 있고 (p.308), 1938년에 선생 단독명으로 출판한 논문(연구업적 6)에서는 머리말에 감수자였던 기노시타 카메키(木下龜城) 교수가 선생을 “大學院生”이라 표현하였으며, 논문 말미에는 집필시기와 소속을 “昭和 12年 12月, 九州帝國大學 地質學教室”이라고 밝히고 있다.
- 10) 現代科學 제2호(1946, p.69)에도 1937~1938년에 규슈 제국대학 대학원에 재적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 11)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 및 광업연구소의 성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정안기, 2015, “193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조선광업진흥(주)의 연구”,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11, pp.319~342.

- 12) 1947년 1월 24일자 조선일보와 1월 25일자 동아일보 및 서울신문에서 선생의 사망을 기사로 전하고 있다.
- 13) 선생의 40대 모습을 엿볼 가능성이 있는 사진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사진 속에 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제의 사진은 그가 경성대학 교수로 재임하던 1946년 여름에 경성대학 이공학부 제1회 졸업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1946년 7월 3일 촬영)으로, 당시 이공학부 교수진과 졸업생, 그리고 대학 본부와 군정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김종원 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언급(김근배, 2008, “한국 근대과학의 발자취를 따라서①: 빛바랜 사진 속의 근대과학”, 과학과 기술, 2008년 3호, pp.38~41.)도 있다.
- 14) Toriyama, Ryuzo, 1941, “The Carboniferous Foraminifera from the Sosan District, North Heian-Do, Tyosen (鳥山隆三, 朝鮮平安北道楚山地方の紡錘蟲化石),” 地質學雜誌, 第48卷 第579號, pp.563~567. 563쪽에 “Mr. Kin, Shôen”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 15) 1931년과 1932년의 기록: 學園社, 大百科事典 1, 1958, p.936.
1932년 이후 선생의 활동은, 1935년과 1936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연구업적 3과 5)에 그의 소속을 “尙州金山”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추가이공업주식회사 상주광업소 또는 상주 금산에 줄곧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 16) 기사(技師)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음 참조: 김근배, 2008, “한국 근대과학의 발자취를 따라서①: 빛바랜 사진 속의 근대과학”, 과학과 기술, 2008년 3호, pp.38~41.
- 17) 강점기의 대학 ‘강사(講師)’란 현재 한국의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지위라기보다는 ‘전임강사’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999, 서울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初期 略史(1920~1953), p.70.
- 18) 朝鮮總督府 官報 제5544호(1945년 7월 27일 발행)의 7월 13일자 서임 및 발령 기록: “任 京城帝國大學教授 金鍾遠 敍 高等官 5等”(p.87) 및 “本俸10級俸 下賜 京城帝國大學教授 金鍾遠 補 大陸科學研究所員”(p.88)
- 19) 지질학자가 창설된 시점도 문헌에 따라 1946년 8월, 1947년 8월, 또는 1947년 말로 달리 적고 있다.
- 20)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1946~1996 서울대학교 50년사(하), p.11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999, 서울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初期 略史(1920~1953), pp.176~178.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017,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70년, 1946~2016, p.357.
- 21) 고바야시 데이이찌(小林貞一)는 김종원보다 한 해 늦은 1901년생이며, 1936년 도쿄제국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44년에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취임한 인물이다.

허우궁

- 22) 김성용, 이재욱, 2015, “해방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광상조사 성과고찰연구”,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1호, pp. 77~88.
- 2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999, 서울대학교 自然科學大學 初期 略史(1920~1953), pp.176~178. 대한지질학회, 1997, 대한지질학회50주년사 자료집, 1947~1997, pp. 7~12.

교신: 허우궁, 이메일: wkhuh@snu.ac.kr; 전화: 010-9964-6450

Correspondence: Woo-kung Huh, Email: wkhuh@snu.ac.kr; phone: 010-9964-6450